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ING 100억 유로 구제금융: 미래손실을 예방하는 버퍼?

□ 네덜란드계 은행·보험 그룹인 ING는 자본 부족에 대한 루머로 인해 주가가 10월17일 금요일 27% 폭락하여 주당 7.34 유로를 기록한 후, 3/4분기 순이익(잠정)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시현했다고 발표함.

- 주식, 채권에 대한 투자손실 및 거래 은행의 도산과 부동산 시장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20억 유로를 상회하는 가운데 은행부문 대손충당금이 4억 유로로 증가되면서 3/4분기 순이익이 -5억 유로를 기록함.
- 한편, ING 은행부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Alt-A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가치는 15억 유로가 감소하였고(세후기준), 주식총액도 239억 유로가 감소함(9월 현재).
- ★ Alt-A 서브프라임은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에 해당
- 은행부문의 solvency ratio인 Tier-1은 8.5%, core Tier-1은 6.5%를 나타낸 반면 부채/자본 비율은 15%를 시현함.

□ ING는 Tier-1이나 부채/자본비율이 목표치 선상에 있고 영업실적이 확고하므로 3/4분기 순이익의 적자를 일회성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가는 최근의 환경하에서 유로시장이 요구하는 'Tier-1: 10%' 기준을 맞추고 나아가서 미래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핵심 자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함.

- ING는 10월20일(일)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(134억 달러)의 구제금융을 받아 50억 유로는 은행부문, 20억 유로는 보험부문의 자본을 강화하며 30억 유로는 ING그룹 전체의 자본을 강화하여 부채/자본비율을 15%에서 10%로 낮추기로 함.
- 이와 같은 자기자본 보강을 통해 은행부문의 core Tier-1을 6.5%에서 8%로 증가시키고 ING 그룹의 Tier-1을 향후 10%로 상승시킬 계획이라고 밝힘.
- 네덜란드 정부는 주식 한 주를 10 유로로 계산하여 ING 주식 10억 주와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맞교환하고, 연평균 8.5%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보통주 배당의 110%(2008년), 120%(2009년), 125%(2010년)를 보장받기로 결정함.
 - 단, 3년 이내에 ING가 주식을 다시 구매할 경우 한 주당 가격은 15 유로이며, 3년 이후부터는 10 유로에 구매하여 보통주화 할 수 있고, 이때에 네덜란드 정부는 10 유로에 되팔 수 있는 옵션을 가짐.

- 한편, 애널리스트들은 ING의 자본 강화는 미래의 손실을 미리 막고자 하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유사시에 대한 버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, 20일의 주가는 17일의 27% 대폭락을 만회하여 29% 상승한 9.48 유로를 기록함.
- 애널리스트들은 ING가 네덜란드 GDP의 두 배에 해당하는 1조4천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 내 최고의 금융그룹으로서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로지역 경쟁 금융그룹에 비해 자본 건전성이 양호하며 유동성이나 자금조달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.
- ING는 천억 유로에 이르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, 리보금리 보다 낮게 자금을 그룹 내에서 조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ING의 주가는 연초대비 71% 감소하는 가운데 순이익, 주가대비 이익, core Tier-1도 1/4분기부터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 왔고, 부채/자본비율은 급속히 높아져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ING의 자본 보강 노력으로 일시에 산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금융기관의 자본 강화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.

ING그룹의 2008년 분기별 주요지표 동향

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
순이익(전년동기대비)	15억4천만 유로(19%↓)	19억2천만 유로(25%↓)	5억 유로 적자
주식시세	25.43 유로	23.15 유로	7.34 유로
주식총액 감소	23억 유로	2억6천만 유로	239억 유로
서브프라임 등 투자 손실	5천5백만 유로	4천4백만 유로	15억 유로
core Tier-1 ratio	8.3%	6.2%	6.5%

(Financial Times: 5/14, 8/13, 10/17~10/20

AP: 10/19

ING그룹 보도자료: 10/17~10/20)